

금융 CEO들의 2018 경영 전략

NH농협생명 서기봉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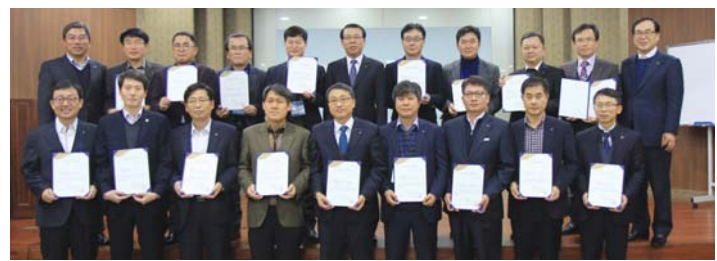
“농업인 보험 서비스 확대”

NH농협생명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 간 농협생명 수안보수련원에서 2018년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목표 달성을 다짐했다고 14일 밝혔다.

NH농협생명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각 지역 총국별 성과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조기 영업추진 분위기 확립 조성에 나섰다. 올해 농축협 채널의 보장성보험 목표(월납초회보험료 기준)는 202억원이다.

서기봉 사장은 “농축협 조기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보험 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자”며 “올해도 농업인과 고객의 소리에 경청하는 자세로 ‘행복한 라이프 플래너’로서 농협생명의 역할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는 서 사장과 김기주 부사장을 비롯 전국 영업 최전선에 있는 지역총국장 등 임직원 약 100명이 참석해 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년도 상품개발 방향 및 현장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NH농협생명 서기봉 사장(두번째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과 김기주 부사장(두번째줄 왼쪽에서 열한번째)이 지역총국장들과 함께 2018년 목표달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NH농협생명

KB생명보험 허정수 사장

‘고객·디지털·가치’ 중심 성장

KB생명보험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올해 허정수 사장 취임 후 첫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경영전략회의에는 허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본사 부서장, 현장 관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2017년 성과 리뷰, 보험연구원 전용식 박사의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 2018년 경영목표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KB생명은 올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고객중심, 디지털 중심, 가치중심의 경영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제도변화와 환경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여 상품개발에는 신보험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중장기 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채널은 어려운 영업환경 극복을 위해 고능력·고효율 중심의 조직운영 전략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허 사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사적 회의로 허 사장의 경영의지를 반영해 영업채널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지원부서는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을 다짐하면서 마무리됐다.

허 사장은 “2018년은 KB생명보험이 그룹의 위상에 걸 맞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이라며 “고객가치 또한 그룹 위상에 맞게 높은 한 해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KB생명보험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올해 허정수 사장 취임 후 첫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KB생명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

기업 생존의 원동력은 ‘영업’

KB손해보험은 지난 13일 수원 KB인재니움 연수원에서 2018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고객중심 경영 등 4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KB손보 임원 및 부서장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종희 사장은 전 임직원들이 영업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양 사장은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고 고객의 트렌드가 바뀌어도 결국 기업을 생존하게 하는 것은 영업”이라며 “2018년은 KB손보의 전 임직원이 영업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손보는 올해 4대 추진과제로 고객중심 경영, 가치중심 성장,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경영기반 구축,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간 상생문화 구축 등을 선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가치경영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신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KB손보 양종희 사장.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르포 | 힐스테이트 동탄2차 견본주택 가보니



지난 주말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서 문을 연 ‘힐스테이트 동탄 2차’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현대건설

테크노밸리 배후주거지로 ‘주목’

오피스텔 청약은 내일부터 진행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마련된 ‘힐스테이트 동탄 2차(주상복합아파트)’의 견본주택.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견본주택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견본주택에서 제공하는 어묵과 호빵 등으로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

현대건설이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동탄 2차’는 동탄 테크노밸리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고 전 세대가 소형으로 구성돼 주택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동탄2신도시 C-1 블록에 지어지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8층 4개동 규모로 총 679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54㎡ 아파트 443가구와 전용면적 22㎡ 140실, 42㎡ 96실 등 오피스텔 236실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동탄 테크노밸리 핵심 입지에 위치해 배후주거지로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한미약품 연구센터를 비롯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연계된 업무시설이 입주 중이며 그린파워와 모베이스 등이 입주 예정이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A씨(43)는 “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단지 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인근에는 대형 종합병원인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있어 직주근접을 희

망하는 수요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도 좋다는 분석이다. SRT(수서고속철도) 동탄역이 반경 1.2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이를 이용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5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을 이용하면, 동탄역(예정)에서 삼성역(예정)까지 2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이날 견본주택을 살펴본 예비 신혼부부는 “회사가 강남에 있는데 교통편이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제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청약 일정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청약 일정이 각각 다르다. 아파트 청약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아파트 당첨자는 24일 발표하며, 계약은 2월 5~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3개군으로 나눠 청약을 받는다. 1인당 균별 1개씩 최대 3건의 청약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청약은 오는 16일 아파트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일은 19일이다. 계약은 22일부터 진행된다.

/구서윤 인턴 기자 yuni2514@

사우디 100兆 규모 원전 건설 ‘최대 수혜’

株라쿨라의 종목 비에이치아이

한국형 중소형 원전 ‘스마트’ 구성 수주 규모에 따라 실적 성장 전망

“주력 사업 부문인 발전용 설비가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한 가운데 중동 특수 바람을 타고 대규모 신규 수주가 가능해 재 평가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2032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원전 건설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비에이치아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최 연구원은 “사우디는 총 100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 중 15~20% 가량은 한국형 중소형 원전 ‘스마트(SMART)’로 구

성할 계획”이라며 “비에이치아이가 한국형 중소형 원전 스마트의 사우디 수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스마트파워’의 2대 주주(지분 15.4%)이기 때문에 수주 규모에 따라 실적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스마트원전의 건설비용은 1기당 1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비에이치아이는 스마트파워 지분에 따라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보조기기 분야에서 1기당 약 1000억원 규모의 설비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비에이치아의 주력 사업인 HRSG(복합화력발전)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에이치아이는 1998년 설립된 발전용 기자재 전문 업체로, HRSG(복합화력발전)와 보일러(석탄화력발전) 등의 주기기 및 보일러와 터빈 등을 연결하는 보조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중 LNG기반의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다시 스팀터빈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설비인 HRSG는 석탄화력발전 대비 유해 가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 발전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힘입어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최 연구원은 “비에이치아이는 지난해 말 기준 550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다”며 “올해는 보일러, 환경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4000억원 이상의 신규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신규 수주 금액인 2300억원에 비해 확대되는 것이다.

리서치알음은 비에이치아이에 대해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65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60.5%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손임지 기자 sonumji310@

중소형주 펀드 ‘약진’...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 ‘쭉쭉’

주간펀드동향

대형주 부진에도... 수익률 1.77%

국내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형주 펀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한 주(1월 5일~11일)간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0.87% 상승한 2487.91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해보면 중형주(3.40%)와 소형주(3.33%)의 수익률이 대형주(0.90%)를 크게 앞질렀다.

이에 국내주식형 펀드는 해당기간 1.7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대형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가 약진한 결과다. 다만 주 중반 코스피 하락에 연동하며 인덱스펀드에서 자금 유출

단위: 개, 십억원, %

구분	펀드수	순자산	수익률		
			1주	1개월	연초이후
국내주식형	821	59,418	1.77	3.56	1.50
국내혼합형	624	17,706	0.43	1.02	0.26
국내채권형	249	17,238	0.00	0.07	0.00
MMF	126	89,601	0.03	0.13	0.04
해외주식형	707	26,059	1.79	5.32	4.02
해외혼합형	290	4,918	0.92	2.99	1.84
해외채권형	141	7,872	0.04	0.19	0.22

/자료: FnSpectrum (에프앤가이드 유형분류 기준)

이 발생한 결과 국내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전주 대비 4840억원 감소했다.

한편 신흥아시아펀드를 중심으로 해외주식형 펀드의 활약은 계속됐다. 해당기간 수익률은 전주 대비 1.79% 상승하면서 5주 연속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형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에서는 러시아(3.70%)가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고, 베트남(2.66%), 인도(2.48%)이 뒤를 이어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이에 순자산은 전주 대비 5040억원 증가했다.

/손임지 기자